

‘자기다움’으로 빛나는 남자

한정식집 ‘종가’ 대표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이정섭

부드러운 말투, 뛰어난 요리 솜씨, 고운 음색, 섬세하고 우아한 춤사위, 부드러운 말투와 몸짓을 구사하는 연기자 겸 요리전문가 이정섭(66). 400년 종가집에 태어난 그는 집안에서 ‘별놈’이었다. 별난 재주 탓에 아버지께 솔하게 맞았다. 그런데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은 바로 고놈의 별난 재주였다.

5월 4일 이 대표가 22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제동 한정식집 ‘종가(宗家)’에서 그를 만났다. 제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정섭 대표는 젊어 보였다.

“특별한 건 없고 딱치는 대로 일해요. 매일 둘째 일요일 양정고등학교 동기들이랑 산행을 하는데 내가 늦을 땐 삼각산 승가사까지 막 뛰어 올라가요. 한국무용을 출 기회가 있으면 춤을 추기도 하는데 늘 연습을 하죠. 관리라기 보다는 생활이죠.”

그는 건강의 3요소로 공기, 물, 먹거리를 꼽았다. 먹거리 중에서는 김치, 된장, 젓갈 같은 발효식품이 산성화된 우리 몸에 알칼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늘게 먹는 것을 억제한다고 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정섭 씨는 담배를 꺼내 봤다. 술 담배도 친구들과 적잖이 즐기는 듯 했다.

“이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필요악이예요.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담배가 나쁘다고 하는데 뭐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예요. 좋다는 것도 많이 먹으면 그것도 못 쓰는 일이지요.”

한국의 장아찌와 젓갈, 김치, 9절 반상과 까다로운 재료 선정 등 말에 막힘이 없었다. 그는 요리와 하나가 된 듯 보였다.

이정섭 대표는 종가집에서 태어나 14대를 한 동네에서 살았다. 24살까지 증조할아버지와 곁살을 했던 그의 입맛은 까다롭고 고집스럽다. 식량을 세우면서 ‘내가 먹는 것처럼’ 내가 먹고서 나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손님이 간을 갖고 뭐라 해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다.

목소리만 들어서는 그의 인생은 고상하게 흘러왔을 것 같다.

“중학교 때부터 연극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인기가 최고였지. 그런데 자랄 때는 아버지께 많이 맞았어.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고 연극을 해도 여자 역할만 하니까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다닐 때는 목소리 때문에 배우도 포기하고 연출만 했었지. TBC 동양라디오가 첫 직장이었는데 예수로 배웠던 것을 기술로 하니 싫더라. 해상무역업도 하고, 광고 판촉물 회사도 했다가 짝딱 망했어. 집에서 목욕탕을 했는데 개죽하러다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17번 재판도 했지. 그때는 자살을 3번이나 생각했었어.”

존댓말과 반말을 오가며 하는 그의 말투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묘한 매력이었다. 41세 때 경험한 사기와 재판의 과정은 엄청난 시련이었다.

“살면서 보니까 인생은 순해도, 공짜도, 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았죠. 죄는 지은대로 가고, 공(空)은 닭은 대로 간다는 것도

400년 종가집서 나고 자란 ‘별놈’

어려울 때 생각하니 ‘지금 참 행복’

알겠고,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고 내일의 결과가 모레라는 걸 알겠어요. 인생은 점과 점이 점점점이 이어가면서 한 선을 이루죠. 그게 불교의 공 같아요.”

매일 사시·저녁예불을 하고 108배를 했다. 198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만 7000배를 성만했다. 1988년에는 ‘3000배도 안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며 9시간 40분 만에 3000배를 마쳤다.

“18살 때부터 어머니가 아들을 앞세워 절에 가고 싶어 했어요. 효의 발로로 어머니를 따라가 ‘똥대로 하옵소서’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드렸죠. (그는 이 말 끝에 합장으로 정성스럽게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대에 갈 즈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군대에 가야하는 현실이 남득이 되지 않았어요. 24살이었는데 그때 업(業)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군대 갔더니 좋고 싫 수도 있다고 해서 잠깐 교회를 갔는데 제대 후 다시 불교에 귀의했죠. 영화 연극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하고, 감동을 주려면 인생을 알아야 했어요. 철학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불교를 통해 알고 싶어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갔죠.”

제대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들어가 1

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불교학자들과의 교류도 많았다. 일본 고마자와대학에 가서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할 생각도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교학공부는 중단했다. 대신 삶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의 진리를 깨쳐갔다.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듯 인생에서 굴곡이 크게 한 번 있어야 사람이 커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와 어려운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참 행복한 걸 알죠. 증조할머니는 ‘위를 쳐다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든 항상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죠. 그것을 극복할 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대화 중 아버지, 어머니, 증조할아버지·할머니 등 조상을 자주 언급했다. 아버지는 그가 탤런트 되는 것을 못보고 돌아가셨다. 2남 5녀 중 맏이인 그는 불심 깊은 어머니와 상의해 아버지부터 불교식으로 조상을 모시기로 했다.

“한마음선원 지원인 총복 음성 광명선원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가끔 참배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던 연기와 요리로 세상에 나와서 먹고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봐요. 인연법과 업은 틀림없는 진리예요. 할아버지가 뿌린 덕이 손자한테 간다’는 말이 있어요. 조상의 업이 있기 때문에 자손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조상에게 잘하고 나를 만난 누구든 소중한 인연이기에 잘 하려고 노력해요.”

1979년부터 양산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과 인연을 맺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인사를 드린다. 부산 안국선원에서 간혹 선 체합도 하고, 삼각산 승가사 등 부처님 계신 곳은 어디든 간다. 특히 법패, 승무, 바라춤, 나비춤, 범고작법 등은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한다. 그는 “불가에서 나온 예술이 참 대단하지. 한국적인 것은 다 좋다”며 웃어보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흉내낸다. 하지만 이정섭 대표는 누구도 흉내내지 않는다. 연기와 한국전통 발효요리를 사랑하고, 우악스러움보다는 부드러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물요리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참기름처럼 끝까지 자기다움을 지키는 불제자였다. 종가 (02)764-7303

글=이상언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불과 여려웠음!
나의
관상아저씨
행복하게
2011. 5. 10
불기 2555
정·宗家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음 선원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031-470-3100 FAX: 031-470-3116
www.hanmaum.org

<국내·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곡4구 신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상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6-8163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 (033)8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암면 반곡리 449번지 TEL: (054)555-8871 FAX: (054)556-1989
- 미국 뉴욕 플라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FAX: (1-718)939-3974
- 미국 워싱턴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FAX: (1-703)560-5166
- 미국 로스앤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FAX: (1-323)766-19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FAX: (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FAX: (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 (54-11)4921-9286 FAX: (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투쿠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 (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2131)969551 FAX: (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 (070)8258-2391 TEL: (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 (55-11)3337-5291

부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마음의 꽃으로, 마음의 향으로
온 우주를 덮는 불성의 꽃 한송이가 되어
내 안에 피어납니다

원장 대 행 /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